

氣에 대한 少考 (《內經》을 중심으로)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古典研究所 常任研究員 崔三燮

I. 緒論

氣는 크게는 天地, 自然을 운동, 變化하게 하는 原動力으로 天地人 三才의 구성요소이며, 작게는 人體生命活動의 규율 및 疾病 발생의 原因, 病機, 辨證, 豫防 및 養生, 그리고 藥物의 性能에 이르기까지 思想의 핵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 應用에 있어서도 天地之氣, 自然之氣, 陰陽之氣, 五行之氣, 四時之氣 등 널리 應用되어지고 있다. 이를 醫學에서 살펴보면, 生理的으로는 人氣, 正氣, 精氣, 宗氣, 大氣, 營氣, 衛氣, 眞氣, 清氣, 濁氣, 神氣, 血氣, 水穀之氣, 中氣, 生氣, 胃氣 등이 있고, 病理的으로는 邪氣, 氣鬱, 氣滯, 氣逆, 氣虛, 氣脫, 氣陷 등이 있으며, 또 藥物 氣味論의 氣가 있다.

이렇듯 氣에 대한 含意는 넓고 무한해서 매우 난해하다. 이에 본인은 醫學과 관련된 것을 中心으로 氣의 개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內經》과 몇가지 서적을 中心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本論

1. 天地自然의 氣

天地自然의 氣는 天地之氣, 五行之氣 및 四時之氣 등을 포괄하고 있다.

가. 天地之氣는 天地萬物을 구성하는 精微로운 物質을 지칭하며, 天氣와 地氣로 나눌 수 있다. 천기는 즉 자연계의 天陽之氣를 말하며, 지기란 곧 자연계의 濁陰之氣를 가르킨다. 예를 들면 《素問·陰陽應象大論》에 “고 清陽爲天 濁陰爲地 地氣上爲雲 天氣下爲雨 雨出地氣 雲出天氣”¹⁾라 하였고, 《素問·至眞要大論》에서는 “天地合氣 六節分而萬物化生矣”²⁾라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한 天地之氣는 실제로 自然界의 陰陽之氣이며, 바로 一種의 至精

1. 《醫部全錄一·黃帝素問》, p. 56, 大成文化社. 王冰注에 이르기를 “陰凝上結 則合而成雲 陽散下流 則注而爲雨 雨從雲以施化 故雲出地 雲憑氣以交合 故言雲出天……”라 하였다.

2. 《醫部全錄二·黃帝素問》, p. 394, 大成文化社.

至微한 物質인 동시에 自然萬物의 가장 根本的인 物質³⁾로서 構成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天地之氣가 交合하면 自然界의 萬物만 生成되는 것 뿐만 아니라 人類도 生成되게 된다.⁴⁾

이 天地之氣에 대하여 張介賓은 “무릇 生化의 道는 氣로서 근본을 삼으니, 天地萬物이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 때문에 氣가 天地의 밖에 있는 즉 天地를 포괄하고 網羅하며, 氣가 천지의 內에 있는 즉 天地를 運行시킨다. 日月星辰이 이 氣를 얻음으로써 밝으며, 雷雨風雲도 이 天地之氣를 얻으므로 배풀어지며, 四時萬物 또한 이 氣를 얻으므로 生長收藏하니, 어찌 氣의 행하는 바가 아니리오? 인간의 生에 있어서도 順전히 이 氣에 힘입는다”⁵⁾라 하였다.

나. 五行之氣는 木火土金水의 五種의 서로 다른 속성을 나타낸 것으로, 《內經》의 五行之氣는 자연계의 표현뿐만 아니라 人體를 표현한 것이며, 아울러 이 五行으로서 人體의 生理와 病理를 해석했다고 할 수 있다. 예로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北方生寒 寒生水 水生鹹 鹹生腎 ……”⁶⁾이라 하여 人體 각 臟腑와 組織, 機關이 自然界의 五行之氣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그 機能도 五行之氣의 특성과 더불어 서로 類似함을 말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자연계 五行之氣의 相生相剋은 萬物 또한 “生剋制化”의 한 고리속에 연계되어 이와 더불어 相應하며, 人體五臟의 生理活動 또한 “生剋制化”의

3. 上揭書, p. 394. “化於天者 爲天氣 化於地者 爲地氣 萬物居天地之間 悉爲六氣所生化 陰陽之用 未嘗有逃生化出陰陽者”

규율로 서로 연관되어 統一된 生命體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또 《素問·六節藏象論》에 “天食人以五氣 五氣入脾 藏于心肺 上使五色修明 音聲能彰”⁷⁾이라 하였는 바, 人間은 하늘이 배풀어 준 五行之氣를 받아 비로소 色과 性を 밝게 드러내고 生命活動을 수행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다. 四時之氣는 天地陰陽盛衰의 표현이다.⁸⁾ 자연계의 陰陽之氣는 消長盛衰의 끊임없는 변화를 하고 있으며 때문에, 一年에 春夏秋冬 사시의 계절이 생겨난다. 人體의 五臟은 生理上 四時之氣와 더불어 相通하며 相應하는데 春氣는 肝과 통하고 夏氣는 心과 통하며 秋氣는 肺와 통하고 冬氣는 腎과 통한다. 病理的으로 보아도 봄에 春氣를 거스리면 少陽이 生하지 못하여 肝氣가 內變하고 여름에 夏氣를 거

4. 上揭書, p. 214. “岐伯曰 言天者求之本 言地者求之位 言人者求之氣交, 帝曰 何謂氣交, 岐伯曰 上下之位 氣交之中 人之居也. 故曰 天樞之上 天氣主之 天樞之下 地氣主之 氣交之分 人氣從之 萬物由之 此之謂也”

5. 張介賓, 《張氏類經》, p. 5, 成輔社. “夫生化之道 以氣爲本 天地萬物 莫不由之 …… 人之有生全賴此氣”

6. 《醫部全錄一·黃帝素問》, p. 71.

7. 上揭書, p. 127.

8. 上揭書, p. 17. “春三月 此謂發陳 …… 夏三月 此謂蕃秀 …… 秋三月 此謂容平 …… 冬三月 此謂閉藏 ……”의 馬蒔注에 이르기를 “春之三月也 陽氣已生 最能發生而敷陳之 …… 夏之三月也 陽氣已盛 物蕃且秀 …… 秋之三月也 陰氣已上 萬物之用至此平定 …… 冬之三月也 陽氣已伏 萬物潛藏 ……”이라 하였다.

스리면 太陽이 자라지 못하여 心氣가 內洞한다.⁹⁾ 즉 인체의 生理活動과 病理反應은 四時之氣의 陰陽盛衰에 따라 반응하므로, 정상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疾病의 治療, 豫防 및 養生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에 준하여야 한다.

2. 生理之氣, 正氣로서의 氣

이른 바 正氣란 生理之氣이며, 인체생명활동의 原動力이다. 사람은 자연계의 産物로서 天地之氣를 稟受하여 생성되었으므로, 인체는 天地陰陽之氣와 五行之氣를 함유하여 生理之氣를 구성하며, 이것이 바로 正氣이다. 《內經》에서는 여러가지의 生理之氣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른 바 人氣, 精氣, 陰陽之氣, 清濁之氣, 臟腑之氣, 經絡之氣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氣의 개념은 여러가지로 표현되고 있다. 인체의 氣는 先天之氣와 後天之氣가 있으며, 先天之氣는 元陰, 元陽之氣이며, 後天之氣는 呼吸, 營養之氣이다. 氣는 全身을 充滿케하며, 呼吸을 관리하고 血의 運行을 統帥하며 津液을 生化, 運行하고 皮膚, 腠理와 五臟六腑를 溫養케하는 機能이자 物質로서 宗氣, 營氣, 衛氣라 칭한다.

1. 人氣

人氣는 사람의 全身之氣를 지칭하는 것이다. 天地人을 三才라 하는데, 天에는 天氣가 있고 地에는 地氣가 있으므로 사람에게 人氣가 있다. 人氣는 인체를 구성

하는 基本 物質 및 그 生理機能으로서 天地四時之氣의 변화를 따라서 변화하며 아울러, 인체의 臟腑와 각 부위에 나타난다. 예를 들면, “正月二月……人氣在肝, 三月四月……人氣在脾, ……五月六月……人氣在頭, ……七月八月, ……人氣在肺, 九月十月……人氣在心, 十一月十二月……人氣在骨”¹⁰⁾이라 하였다. 즉 人氣는 四時之氣의 昇降浮沈을 따라서 相應하는 臟腑를 主하여 그 臟의 氣를 양성하게 한다.

2. 精氣(元氣)

《內經》에서는 ‘精氣’를 “精”이라고 칭하였다. 또 《內經》에서 논하는 바의 精은 先天之精¹¹⁾과 後天之精¹²⁾을 다 포괄하고 있으며, 先天之精은 부모에게서 傳수하여 生命과 더불어 같이 온 것이며, 胎胚를 구성하는 基始物質이기 때문에 “生殖之精”이라 칭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靈樞·決氣篇》에서는 “兩神相搏 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¹³⁾이라 하였다.

後天之精은 사람이 출생한 後에 後天 食物중에서 얻은 精微로운 物質이며, 五臟六腑의 生理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素問·上古天真論》에서 “腎者主水, 受五臟六腑之精而藏之”¹⁴⁾라 하였는데, 여기서 거론한 精이란 곧 後天之精을 가리킨다. 先天之精과 後天之精은

10. 上揭書, p.176.

11. 河北中醫院 校釋, 《靈樞經校釋》, p.174, 人民衛生出版社. “生之來 謂之精”

12. 上揭書, p.359. “營衛者 精氣也”

《醫部全錄一·黃帝素問》, p.469. “營者 水穀之精氣也”

13. 河北中醫院 校釋, 《靈樞經校釋》, p.499, 人民衛生出版社.

14. 醫部全錄·上揭書, p.7.

9. 上揭書, p.20. “逆春氣則 少陽不生 肝氣內變, 逆夏氣則 太陽不長 心氣內洞, 逆秋氣則 太陰不收 肺氣焦滿, 逆冬氣則 少陰不藏 腎氣獨沈”

모두 腎에 저장되며 합칭하여 “腎精”이라 한다. 精은 능히 氣로 化하기 때문에 腎精이 化하여 된 精氣를 곧 腎氣라 하고 “元氣”라 하기도 한다.¹⁵⁾칭하는 것이다.

3. 宗氣

宗氣는 肺로부터 吸入된 자연계의 清氣와 脾胃運化로부터 얻어진 水穀의 精氣가 胸中에서 結合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예를 들면 《靈樞·邪客》에서는 “宗氣積於胸中，出于喉嚨 以貫心肺 而行呼吸焉”¹⁶⁾이라 하였다. 宗氣는 食道로 가서 呼吸을 다스려 言語聲音과 呼吸의 強弱을 조절하는데, 이는 모두 宗氣의 強弱에 의하여 변화한다. 그러므로 宗氣가 강한 건강한 청년은 연로한 노인보다 聲音이 宏亮하고 呼吸도 有力하다. 만약 宗氣가 虛衰하면 호흡이 短弱하고 言語가 完만하며 성음도 낮고 미약할 것이다.

동시에 宗氣는 血氣로서 心肺를 관통하며 氣血의 運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宗氣가 旺盛해지면 氣血이 전신에 잘 순행되어 臟腑組織의 機能活動도 왕성하게 된다.

4. 營氣

營氣는 中焦脾胃에서 化生된 水穀의 精微로운 부분으로서 經脈중에서 운행되며, 마치 霧露와 같이 營養을 전신에 관개한다. 안으로 流溢하여서는 五臟六腑에 輸布되며 밖으로 灌溉하여서는 筋骨과 皮毛를 운택하게 한다. 運行過程中에 血液循環을 촉진하되 脈道의 안으로만 운행케 하며 脈外로 넘치는 작용은 하지 않는다.

15. 醫部全錄·上揭書, p. 58, “‘精化爲氣’張志聰曰……精爲元氣之本 氣乃精之化也”

17) 또한 營氣는 능히 그 정미로운 것이 “上으로 肺脈으로 흘러 곧 化血할 수 있다.”¹⁸⁾ 따라서 혈액의 중요한 구성성분이 되어 臟腑를 濡養한다. 때문에 《靈樞·邪客》에서는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于內 化而爲血 以營四末 內注五臟六腑”¹⁹⁾라 하였다. 만약에 사람이 營血이 부족하면 대부분 皮膚가 마르고 거칠며, 주름살이 생김은 물론 四肢가 溫養을 잃고 臟腑生理機能 또한 衰弱해진다.

5. 衛氣

衛氣는 中焦脾胃에서 化生된 水穀의 정미로운 것중에서 慄悍한 것으로서 그 質은 비교적 營氣보다 濁하고 脈道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經脈의 밖으로 순행하여 胸腹의 內와 機關의 사이로 흩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素問·痹論》에서 “衛者 水穀之悍氣야 其氣慄疾滑利 不能入于脈也 故循皮膚之中 分肉之間 熏于膏膜 散于胸腹”²⁰⁾이라 하였다.

衛는 陽氣로서 膏膜을 熏하고 胸腹에 흩어져 五臟六腑를 온양한다. 또한 脈外로 順行하며 肺의 宣發을 통하여 皮膚, 肌肉, 腠理에 운행, 分肉을 온양하고 皮부를 充實하게 하고 腠理를 滋養한다. 그리고 衛氣는 汗孔의 開閉를 主司하니, 衛氣가 表로 나온 즉 汗孔이 열리며 衛氣가 裏로 들어간 즉 汗孔이 닫힌다.

따라서 衛氣는 肌表를 保衛할 뿐만 아

16. 河北中醫學院 校釋, 上揭書, p. 266.

17. 河北中醫學院校釋, 上揭書, p. 359. “其清者 爲營 濁者爲衛 營在脈中 衛在脈外…… 故獨得行於經隧 命曰營氣 ……”

18. 河北中醫學院·上揭書, p. 359.

19. 河北中醫學院校釋, 上揭書, p. 266.

20. <<醫部全錄一·黃帝素問>>, p. 469.

니라 外部 邪氣에 항거하는 작용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靈樞·本藏》에서 “衛氣者 所以溫分肉 充皮膚 肥腠理 司開合者也 ……衛氣化 則 分肉解離 皮膚調柔 腠理緻密矣”²¹⁾라 하였다. 만약에 이러한 기능을 가진 衛氣가 虛弱해지면 衛外 기능이 저하되어 일단 外邪가 侵襲하면 쉽게 병변을 일으킨다.

衛氣의 運行은 晝夜와 寤寐의 영향을 받는다. 백주에 사람이 깨어 있으면 위기는 體表로 行하여 인체로 하여금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며, 밤에 잠이 들면 內臟으로 행하여 生體로 하여금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대하여 《靈樞·大惑論》에서 “衛氣不得入于陰 上留于陽 ……陰氣虛故 目不瞑 ……衛氣者 晝日上行于陽 夜行于陰 故陽氣盡則臥 陰氣盡則寤”²²⁾이라 한 것이다.

또 위기가 약해지는 老年이 되면 잠들기 어렵고, 잠이 적어지는 원인중의 하나도 곧, 정상적으로 衛氣가 陰分에 들어가지 못하기 못하기 때문이다.

3) 疾病을 일으키는 邪氣

《內經》에서는 인체의 병을 발생시키는 각종 인소를 “邪” 혹은 “邪氣”라 칭하고 있다. 體外의 致病因素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風, 雨, 寒, 暑 등이며 밖으로부터 체내에 침범하는데 이것을 “外感邪氣”라 하니, 《內經》에서는 이를 “陽”邪라 칭하고 있다. 체내의 正氣인 人氣, 精氣, 陰陽之氣, 神氣, 血氣 등이 精神的인 문제나 생활의 不調和로 만약 平衡과 협조를 이루지 못하면, 體內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邪氣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致病邪

氣를 “陰”邪라 한다. 이에 대하여 《素問·調經論》에서는 “夫邪之生也 或生于陰 或生于陽 其生于陽者 得之風雨寒暑 其生于陰者 得之飲食居處 陰陽喜怒”²³⁾라 하였다.

《內經》에서는 특히 인간의 정신적인 因素가 생리적인 氣의 활동변화에 대하여 영향이 큼을 중시하였다. 즉 사람의 喜, 怒, 憂, 思, 悲, 恐, 驚의 太過나 혹은 갑작스럽고 劇烈한 변화는 모두 生理之氣를 손상하여 병을 일으키는 邪氣로 작용한다. 이에 대하여 《素問·舉痛論》에서 “余知百病生于氣也 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寒則氣收 炅則氣泄 勞則氣耗 思則氣結”²⁴⁾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刺法論》에서 말한 ‘正氣存內 邪不可干’에서의 邪는 陽邪즉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邪氣를 말하며, 《評熱病論》에서 논하고 있는 ‘邪之所湊 其氣必虛’의 ‘氣’는 邪氣의 상대되는 말로써 질병을 예방하는 인체의 건강한 氣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4) 藥物之氣

藥物之氣는 약물의 性質과 功用을 말하며, 氣와 味 양방면을 포괄한다. 氣에는 寒, 熱, 溫, 涼의 四氣가 있고 味에는 酸, 苦, 甘, 辛, 鹹의 五味가 있다. 《內經》에서는 약물의 性質과 機能을 概括하여 氣味라 하였으며, 약물지기는 바로 韓醫學 이론의 중요 특징으로서 임상에 있어서 辨證用藥의 중요한 근거이다. 이러한 藥物의 氣味에 대하여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陽爲氣陰爲味 ……陰味出下竅

21. 河北中醫學院校釋, 靈樞經校釋下, p. 49.

22. 河北中醫學院校釋, 上揭書, p. 443.

23. 《醫部全錄二·黃帝素問》, p. 112.

24. 《醫部全錄一·黃帝素問》, p. 429.

陽氣出上竅 味厚者爲陰 薄爲陰之陽 氣厚者爲陽 薄爲陽之陰 味厚則泄 薄則通 氣薄則發泄 厚則發熱”²⁵⁾이라 하였으며, 《素問·至真要大論》에서는 “辛甘發散爲陽 酸苦涌泄爲陰 鹹味涌泄爲陰 淡味滲泄爲陽”이라 하였고, 같은 篇에서 동시에 “寒者熱之 熱者寒之”, “寒因熱用 熱因寒用 寒因寒用 塞因塞用 通因通用……”,라 하고 “寒熱溫涼 衰之以屬”²⁶⁾이라 하는 등 약물의 氣로서 질병을 치료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규율을 논하고 있다.

5) 氣에 대한 《內經》의 인식

이밖에도 《內經》의 氣에 대한 개념은 폭넓은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첫째, 氣는 우주의 본원이다. 《內經》에서 氣는 萬物의 본원으로서 만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연적인 氣는 최종적으로 陰氣와 陽氣로 양분된다. 그러므로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清陽爲天 濁陰爲地”라 하였다. 인간은 天地之氣로 말미암아 化生되며, 인체는 陰陽二氣로 말미암아 조성되며 아울러 사람의 感覺 및 思惟 등 정신현상 또한 氣의 운동변화로 말미암아 화생 된다. 따라서 《素問·天元紀大論》에서 “人有五臟化五氣 以生喜怒憂思恐”²⁷⁾이라 하였다.

둘째, 氣는 영원하고도 恒常 運動하는 것이다. 氣의 운동은 자연계 萬物의 發展, 變化하는 근본 動力이다. 따라서 《素問·六微旨大論》에서 “氣之升降 天地之更用也……天氣下降 氣流于地 地氣上升 氣騰于天 故高下相召 升降相因 而變化作矣”²⁸⁾라 한 것이다. 이와 같이 氣의 끊임

없이 멈추지 않는 운동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사람에게도 生長壯老의 생명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인체내의 氣가 운동을 정지한다면 사람의 생명활동 또한 곧, 따라서 종말을 고할 것이다.

셋째, 《內經》에서는 形과 氣의 相互 轉化하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物質世界에 있어서 存在와 運動의 기본 形式은 氣와 形 二者의 相互轉化인데, 《內經》은 陰陽理論을 빌려서 形氣轉化의 根源을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陽化氣 陰成形”²⁹⁾이라 한 것이다. 이는 陽이 動하여 흩어져 氣가 되며, 陰이 靜하여 凝集하는 까닭에 形을 이룸을 설명하고 있다. 즉 陰陽動靜의 相互作用으로 말미암아 氣는 化하여 形을 이루고, 形은 흩어져 氣가 되는 兩種의 상반되는 운동과정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III. 結 論

종합하건데 氣에 대한 학설은 韓醫學理論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基始點으로서 인체를 구성하고 생명활동을 유지시키는 基本物質이다. 氣가 陽에 있으면 陽氣라 칭하고, 陰에 있으면 陰氣라 하며, 脾에 있으면 脾氣, 經絡內에 있으면 營氣, 經絡外에 있으면 衛氣, 中焦에 있으면 中氣, 下焦에 있으면 元氣라 부른다. 문헌 중에 心氣, 肝氣, 脾氣, 肺氣, 腎氣, 中氣 및 太陽氣, 少陽氣 등등의 명칭은 활

25. 《醫部全錄一·黃帝素問》, p. 58.

26. 《醫部全錄二·黃帝素問》, p. 458.

27. 上揭書, p. 157.

28. 上揭書, p. 214.

29. 《醫部全錄一·黃帝素問》, p. 54.

동기능과 氣가 존재하는 局部 명칭으로 이름한 것이며, 그 生成과 作用으로 볼 때는 人氣, 元氣, 宗氣, 營氣 및 衛氣로 요약할 수 있겠다.

또한 《內經》에서의 氣 개념은 宇宙의 本源이며, 萬物의 基本的인 元素인 동시에 자연계 만물의 근본 動力이고 形氣轉化의 根源으로서 인식되어진다.

參考 文獻

1. 《醫部全錄 一 黃帝素問》，大成文化史, 1986년 서울
2. 《醫部全錄 二 黃帝素問》，大成文化史, 1986년 서울
3. 張介賓 《張氏類經》，成輔出版社, 1982년, 서울
4. 河北中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人民衛生出版社

KYOBO
교보문고